

기본소득 논의 흐름 및 역사

김남수

민주노동연구원

2020.12.18

목차

1 들어가며

2 기본소득이 형성되기 위한 세 번의 물결

- 첫번째 물결: 토지의 사적 소유를 둘러싼 논의
- 두 번째 물결: 전쟁의 피폐 속에서 근대 복지제도의 형성
- 세 번째 물결: 자동화 혁명에 따른 소득 보장방법 강구
- 네 번째 물결: 완성된 기본소득사과의 형성

3 우리나라의 기본소득

4 소결

하늘아래
새로운
것은
없다

기본소득
사고의
흐름

첫번째
물결:
사유재산
제 반대

두번째
물결:
근대
복지제도
형성

세번째
물결:
소득
보장방법
강구

네번째
물결: 기
본소득론
확립기

첫번째 물결: 토지의 사적 소유를 둘러싼 논의

토마스 페인

- 사회적 배당으로 사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려 함
 - 새로운 기획등장: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만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원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?
 - '자연적 소유'에 기초한 공유 및 배당 계획을 서술한 『토지 정의 (Agrarian Justice)』를 집필
 - '21세 ... 15파운드 지불' + '50세 ... 10파운드 ...', 국가기금

그락퀴스 바뵈프 (Gracchus Babeuf)

- 당면 과제: 누진과세와 보통선거제 주장, 정치·사회 문제의 바탕: 사적 소유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폐 주장

토마스 스펜스

- 페인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된 가치는 사적 소유를 인정한 반면 스펜스는 토지 소유자체를 약탈이라고 봄
- 스펜스는 페인의 계획을 도둑이 훔친 것의 일부를 희생자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

첫번째 물결: 토지의 사적 소유를 둘러싼 논의

존 로크

- 공유로부터 어떻게 사적 소유가 발생했고 또 정당한 지에 대해 논리적 입장 견지
- 인간의 노동을 통해 황무지를 개량한 가치가 대부분이기에 해당 토지의 사적 소유가 정당.



그뤼쿠스 바뵈프

- 사적 소유상태가 사회의 불행과 빈곤의 원인이라고 보고 공유를 회복하려는 시도
- 이러한 공유를 '재산과 노동의 공동체'라 함
- 이런 면에서 현대 공산주의의 원류라 할 수 있음

두 번째 물결의 시대적 배경

- 산업기술의 발전과 제국주의의 대립으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⇒ 사상 최대의 희생자와 서구 문명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져옴
- 다른 한편, 반제국주의와 식민지 독립의 전망,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체제 형성이라는 희망을 가져옴

버틀랜드 러셀: 기본소득 사고에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부여

- 『자유로 가는 길 (Roads to Freedom)』(1918)의 2부 제1장 ‘노동과 급여 (Work and Pay)’
- “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적지만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일정액 보장 받아야”
- “더 큰 소득”이 “공동체가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”
- “학업을 마친 후 누구도 일을 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되며,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최저생계비와 철저한 자유를 보장받아야”

근대 복지제도의 형성

밀너 부부(Dennis Milner & E. Mable Milner)

- 1918년 「국가 보너스를 위한 계획(Scheme for a State Bonus)」 팸플릿 발표
 - 목적: 빈곤계급의 불행과 산업현장의 혼란이라는 **사회문제 해결**
 - 방법: 20% 소득세로 조성된 중앙기금에서 영국의 모든 사람에게 매주 5실링씩 국가 보너스 지불
- 1918년 7월 국가보너스 연맹 결성과 1920년에는 노동당 대회에서 이 의제에 대한 논의(거부됨)
- 거부사유: 소득과 사회복지 혜택 모두를 고용노동과 연관시키는 것을 우선시하였기 때문

근대복지제도의 형성(이어서)

줄리엣 라이스의 문제제기

- 소득과 사회복지 혜택을 고용노동을 연결시킨 구체적인 계획이 「비버리지 보고서(Beveridge Report)」
- 완전고용 기반 복지(사회보험 수당 + 사회서비스 + 공공부조)는 실업자에게 불충분한 실업부조와 자산심사로 파트타임 일자리조차 얻기 힘든 상황
- 문제 해결책: “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”

줄리엣 리스 새로운 사회협약(New Social Contract)

- 복지국가 문제점인 실업자인 경우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‘실업의 덩’ 제거 및 사회보험의 관료제 제거로 국가와 시민사이의 재정관계 간소화 가능
- 복지국가의 ‘젠더 편향성’을 뛰어넘는 전망 제시

1964년 미 대선과 임시 삼중위원회

- 린든 B. 존슨의 '위대한 사회(the Great Society) 정강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'빈곤에 대한 전쟁'(the War on Poverty)
- ⇒ '위대한 사회'가 진보의 방향으로 미국을 한 걸음 더 앞으로 이끌고 나갔다고 생각하는 통념이 실제의 사회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
- 성과와 실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동화 진전에 따른 노동과 소득의 관계에 대한 질문, 더 나아가 인간 노동 자체에 대한 질문과 함께 등장
 - 전 세계적으로 자동화(cybernation)혁명, 상호확증 무기(weaponry)혁명, 인권(human rights)혁명이라는 삼중 혁명(Triple Revolution)이 진행중인 상황
 - 대처하기 위한 태도와 정책의 급전적 변화와 새로운 합의가 필요
 - 자동화혁명 ⇒ 인간노동을 줄이면서 생산능력 확대 ⇒ 생산력 발전에 비해 사람들의 삶은 빈곤하게 됨

생산력 증대보다는 공평한 분배에 대한 새로운 합의 필요

'새로운 합의'

- “인간 활동이 인간 생활 물질적 기초를 생산하지 않을 때 인간 역할은 무엇인가?”
- “일자리 이외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요구권이 있는가?”



실업보험과 부조와 같은 복지보다는 “소득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”

- 이러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 반향을 일으킴

당시의 인물들

- 마틴 루터 킹(Martin Luther King):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식적·법적 권리가 의미를 잃을 수 있음
- 이즈음 ‘보장 소득’이라는 아이디어는 비록 자산심사를 부가한 것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지지를 받음

기본소득 네트워크의 결성과 기본소득론 형성

기본소득 네트워크 탄생과 그 배경

- 기본소득에 대한 국제회의 ⇒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 ⇒ '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' ⇒ 2004년 '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' 변경
- 기본소득 네트워크 탄생 배경: 복지국가의 위기

복지국가의 위기

- '신자유주의화' 과정 [노동 유연화·불안정화, 금융화, 자동화] ⇒ 완전고용뿐 아니라 안정적 노동자 조직화도 곤란
- 유럽국가 복지제도 조정 ⇒ 복지자체 & 고용 관련 변화 발생
- '공급측면의 개혁' 결과 높은 실업률 초래('노동시장 탈규제')
- 고용 감소 ⇒ 재정 ↓ & 복지비용 ↑ ⇒ 재정 위기 초래
- 완전고용-사회보험-공공부조 선순환 모형이 실업으로 부정적인 관계로 바뀜
- 새로운 계급으로서 불안정노동인 '프레카리아트 (precariat)' 계급 등장하였고 기술혁명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대두될 전망

기본소득론의 형성

- 기본소득 논의는 여전히 정치적·경제적 담론의 중심에 서지 못함.
 - ‘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’에 대한 거부감과 하나는 기본소득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인식
 - 이러한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위기가 필요했음
- **위기 발생: & 대중적 저항**
- 2008년 뉴욕발 금융 위기와 이어진 유럽의 부채 위기
- 대중적 저항: ‘점거 운동’[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시작되어 그해 가을 월스트리트까지(2011년 5월부터)]
- 국제기구의 목소리: 불평등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‘이윤 주도 성장’이 아닌 ‘임금 주도 성장’이 필요성 제시(2012년부터 ILO, OECD, IMF)
- 임금을 얻기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충분한가가 문제: ‘**프레카리아트 (precariat)**’라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이미 많은 노동자가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며, 자동화의 진전은 일자리 자체를 더욱 감소시킬 전망

우리나라 기본소득론의 대두

-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의제의 공적으로 최초 등장: 2007년 대선 사회당 금민후보의 공약중 하나로 제시하였지만 당시 정세 및 이 정책 주창한 정치세력의 역량 미약으로 의미있는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함
- 이후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결성으로 학계일부의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
- 이후에도 사회당-진보신당이 정책으로 제출한 적 있지만 좀 더 넓은 청중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6년 총선이었으나, 두 당 모두 원내 진출 실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가 되지 못함.

유의미한 정치적 의제 대두 및 대중적 인식기

- 기본소득 의제가 주류 담론으로 진입한 것은 2016년 봄 이후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서 대중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그해 7월 서울에서 ‘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’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대회(BIEN Congress 2016) 개최됨
- 2016년 대통령 탄핵이후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
 -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시행하고 있던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정신에 가까운 정책을 제출하기도 함

코로나 19발발로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논쟁, 법제화

- 2020년 사회당계 탈당파가 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와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성한 기본소득당이 출범하였고 용혜인 의원 원내진출
- 2020년 코로나 19발발후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으로 기본소득관련한 논쟁이 언론을 통해 확산됨
- 국회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기본소득과 관련한 세가지 법안 제출
 -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'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'(2020년 6월 30일)
 -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'기본소득법안'(2020년 9월 16일)
 -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'기본소득법안'(2020년 9월 24일)

경험으로부터 얻는 교훈

- ① 기본소득 사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혁명적 진출이 필요
- ② 기존 축적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이윤추구 방식을 추구하려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간 대립에 의해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중적 유화책이 제시됨
- ③ 이러한 사상적 출현의 결과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과 그를 통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계약임

